

# 실내디자인의 韓國傳統表現에 관한 연구

- 韓食堂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 in Interior Design

-Focus on Korean Restaurant-

김형대\*/Kim, Hyung-Dae

## Abstract

In this paper, a strategy for utilizing the Korean traditional spaces and interior design elements in inner space in order to express Korean-style interior design has been studied.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 was gathered from literatures in two categories; space and elements. Space again has been studied in detail in the area of split, continuity, hierarchy, elasticity, dynamics. And study of elements includes floor, wall, ceiling, dan-chung, lattice, laytiles on a roof, rafter, extended eaves, the line of eaves.

30 Korean restaurants were selected, analysed and compared wit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omparison, a strategy for proper expression and utilization of Korean tradition is suggested. In the process of comparison,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and problems were

found. Traditional elements are used in about 50% of Korean restaurants located in hotels, and 25% of those located in department stores. With the survey and other professional's opinions, an implementation plan is suggested as follows;

1. Succession design method of tradition should use mainly amelioration method and use copy and partly abstraction method.
2. Expression of tradition has to include all of space, elements, and decoration. In space structure, Korean tradition space structure must be applied.
3. In order to design with feeling of Korean tradition, various different Korean elements have to be used.
4. In order to express high quality design, high-quality elements has to be used.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우리의 높은 경제 발전은 국민소득이 1만 \$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질적 환경의 욕구는 실내디자인 분야에도 나타나 실내디자인에 급속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 이루어지는 실내디자인의 현실은 이질적 서구 Design을 뚜렷한 개념없이 수용하는 國際主義의 Design으로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우리의 特色을 찾고 좋은 면을 살려 나가기 위한 傳統繼承 및 傳統表現方法에 관한 관심은 실내디자인계의 일부에서 계속 되어 왔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서양 문화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의 문화는 주체가 없는,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sup>1)</sup> 서구지향적인 종속적 태도로 부터 탈피하고, 과거 및 현재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한 가장 韓國的인 디자인이 世界的인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통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실내디자인을 하는 시각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혼이 담겨 우수한 우리의 주관적 실내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전통의 올바른 계승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특징 있는 傳統空間 및 意匠要素가 바르게 널리 쓰이도록 하여 계승되도록 하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통 공간과 의장이 현대의 실내디자인에 바람직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전통공간의 특성 및 전통의장요소(장식물 제외)를 文獻을 통해 정리하고, 전통에 대한 意識과 繼承方法들을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繼承方法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의 주요 호텔·百貨店 내의 한식당과 有名 한식당 각 10곳씩, 30곳을 선정하여 전통성 표현을 조사한 자료와 문헌정리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전통이 표현된 정도·계승방법·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傳統이 바람직하게 活用·繼承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II. 전통의 필요성 및 계승방법

### 1. 전통의 정의

전통을 한마디로 定義하기는 어렵지마는 전통의 뜻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인물들의 정의를 모아 분석하므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의가 될 것이다. 전통의 뜻은

- (1) 김중업씨는 '과거의 모든 遺産'<sup>2)</sup>
- (2) 김수근씨는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어오는 것'<sup>3)</sup>
- (3) 안영배씨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대에도 이해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sup>4)</sup>

2) 김중업, 전통을 계승하는 길은?, 공간 1967년 1월, p.6.

3) 김수근, 앞의 책, p.6.

4) 안영배,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구성수법,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 p. 104.

1) 안영배,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구성수법,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 p. 105.

\*정회원, 인덕전문대학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4)이기백씨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의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것'<sup>5)</sup>

(5)한창진씨는 '전통은 변하는 것이고 發展하는 것이다. 결코 過去에 이루어져서 靜止된 것이 아니고 動的인 것이며 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sup>6)</sup>

(6)국어사전에는 '역사적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서 현재의 생활에 의미와 효용이 있는 문화유산'으로 말하고 있다.

위의 정의들을 분석해보면 광의적해석과 협의적해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김종업→김수근→안영배→이기백 順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창진씨는 변화·발전되는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의 것은 미래에 전통이 되는 것이므로 전통의 뜻을 과거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바탕 위에서 개념지으면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져 남겨지는 유산으로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세월과 함께 변화발전되며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전통의 필요성

우리의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전통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일찍부터 있어왔다. 건축계에선 1960년대에 경복궁 국립박물관이 계획될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민족의 주체성이나 전통성을 크게 표방하고 계획된 기념적 건축물들이 세워질때마다 재연되고는 하였다. 建築은 전통에 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연구의 결과로 전통에 대한 개념이 定着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의 실내디자인도 급속한 현대화에 따른 西歐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뿌리가 없는 허약한 실내디자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관습과 현대적 요구가 수용되는 전통적 디자인이 정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要求된다.

- (1)한국인에게 보다 적합한 실내디자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 (2)국제적인(국적불명의) 실내디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 (3)민족의 주체성 구현을 위해서,
- (4)가장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했을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전통계승의 필요성은 강조되는 것이며, 전통은 어떠한 형태로든 保存·繼承·變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전통계승방법

우리의 옛모습과는 다른 서구화된 양상으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실내디자인은 우리의 관습이 내재된 현대생활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 유는 디자인의 방법 및 그 결과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그 문제점은 전통계승의 결여라 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전통계승의 방법을 원용방법, 변용방법, 추상화방법으로 분류하여 바람직한 계승방법을 모색한다.

### 1) 원용 방법

복사방법, 모사방법, 모방방법이라고도 하며, 모든 전통요소를 그대로 再現시키는 방법으로 전통의 표현이 가장 容易한 방법이며, 대중들이 전통을 가장 쉽게 認識하는 방법이다. 일반인은 이 방법만 한국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전통요소의 부분적 원용을 전문가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계승을 의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不定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전통건축의 모사나 복제는 우리시대의 건축이 아니다.'<sup>8)</sup> '전통은 모방이 아니라 창작과 미학의 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과거의 맹종만을 오늘날

의 방법으로 착각하는 한 뿌리없는 오늘의 현실을 깨우어 주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sup>9)</sup> '현대가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라고 혹평되는 방법이다. 전통 요소도 과거의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창출된 것이다. 원용은 과거를 현대에 고정시켜 현대를 과거화하는 방법이며, 미래로의 변화·발전이 정지된 방법이다.

### 2) 변용 방법

절충방법이라고도 하며, 전통요소중 일부를 선택하여 적절히 單純化 내지 變換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가장 선호하며, 전문인도 대체로 선호하는 전통계승방법이다.<sup>10)</sup> 경제, 기술, 과학등의 발달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생활습관, 문화가 변한 현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므로 전통요소는 현대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변용되면 본래의 이미지로 부터 벗어나 버릴 위험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현이 어렵지는 않아 현대디자인과 접목되는데는 무리가 없는 방법이다.

### 3) 추상적 방법

전통요소의 숨겨진 Concept을 찾아내어 現代의 새로운 디자인을 表現시키는 방법이다. 과거의 전통개념이 발전된 현대디자인으로 나타나 미래로 이어지는 이상적 방법으로 專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나,<sup>11)</sup> 한국성이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표현이 어려우며,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방법이므로 급진적인 추상화는 피해야 할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적 표현은 지나간 시대의 건축형태를 현대적 구조방식으로 모방하거나 변형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통건축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축적 사고와 창의적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시대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창의적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인다.'<sup>12)</sup> '전통의 創造化란 현대의 눈이라는 체를 거쳐 남는 美的要素를 現代라는 새로운 美를 創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過去에 存在하였던 그대로를 現代속에 옮겨 놓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창조를 위하여 과거에 존재하였던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것을 現代의 解釋과 意匠으로 현대속에 再生시키는 것이다.'<sup>13)</sup> '전통을 단지 역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또한 과거의 유산이나 관습으로서 무지각한 것으로 취급하였을 때는 전통은 생명을 잃고만다. 우리는 옛 조형이 지니고 있었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것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문화를 창달시켜야 할 때라고 절감한다.'<sup>14)</sup> 라고 전문가들은 표현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分析하면, 一般인은 원용만을 전통으로 느끼나 계승방법으론 변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專門인은 원용을 전통으로 가장 쉽게 느끼나 계승방법으론 추상화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代表的 專門인들은 변형방법이 포함된 추상적방법을 제안하며 원용방법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에 대한 느낌과 계승방법의 우선순위가 일반인과 전문인이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느낌으론 원용, 계승으론 변형과 추상을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이점을 포용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전통의 변화성을 수용키 위해선 變用方法이 디자인의 1가 되고 原用方法과 抽象的方法이 部分的으로 함께 쓰여져 전통이 이어지고, 새롭게 느껴지며, 발전계승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9) 김광현,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적 표현과 그 파생개념비판,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 p86.

10) 정덕훈,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7, p38.

11) 정덕훈, 앞의 책, p40.

12) 안영배,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구성수법,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 p105.

13) 이경성, 傳統과 創造, 空間, 1967년 2월, p28.

14)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 미, 기문당, 1987, p232.

5) 이기백, 고교 교과서 국어 II.

6) 한창진, 한국건축의 전통양식계승, 건축사.

7) 정덕훈,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7, p36.

8) 이상해, 전통과 건축문화: 그와 상관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 p98.

### Ⅲ. 한국 전통공간 및 의장의 특성

#### 1. 전통공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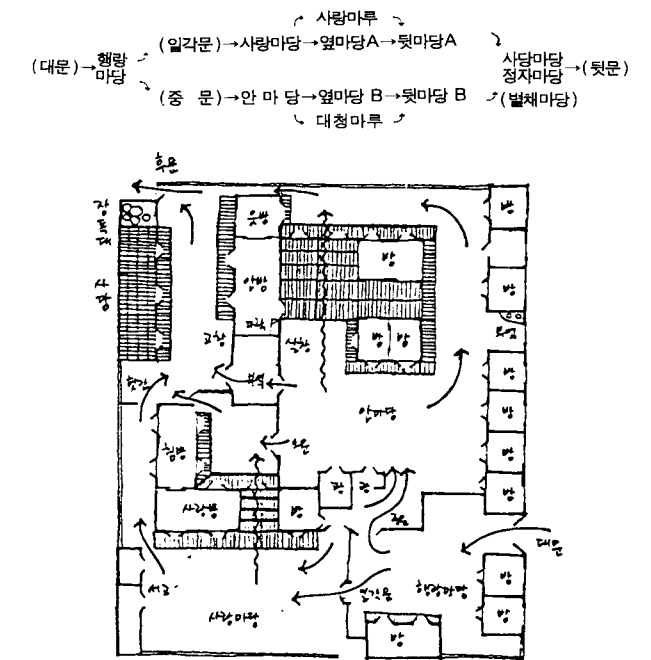
Bruno Zevi 는 '건축의 주인공은 공간'<sup>15)</sup>이라고 하였으며, 老子는 '건축의 진실은 지붕과 벽이 둘러싼 空間속에 있다.'<sup>16)</sup>라고 하였다. 실내디자인은 意匠에 앞서 機能的이며 좋은 空間創出이 우선되어야 한다. 좋은 공간없이 의장만으로는 성공적 실내디자인이 불가능하며, 의장은 어느정도 쉽게 바꿀 수 있으나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공간에는 서구의 공간과 다른 우수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현재의 실내공간디자인에 활용되어야 한다.

##### 1) 분절 및 연속성

우리의 전통공간에서 공간의 분절 및 연속성은 상류주택, 사찰등 대체로 모든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류주택은 마당에 면한 담장 및 채에 의해 분절되고, 행랑마당에서 일각문(중문)을 통해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 연속되며, 사랑마당은 측마당을 거쳐 뒷마당으로, 안마당은 다른 측마당을 거쳐 다른 뒷마당으로 연속되며, 이 뒷마당들은 사당마당 또는 정자마당으로 연속된다. 이 과정중에서 특이한 점은 사랑마당, 안마당에서 뒷마당으로 연속시 마당과 마당만의 연속이 아닌 반 내부공간인 대청마루, 사랑마루 공간이 측마당과 함께 연속되는 것이다. <그림 Ⅲ-1> <표 Ⅲ-1>

사찰에선 채에 의해 공간이 분절되고, 채와 채의 구성으로 공간이 형성되고 연속된다. 一柱門과 金剛門·天王門과 같은 여러 山門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過程的 空間은 절정을 이루는 大雄殿앞의 크고 넓은 <표 Ⅲ-1> 한국 전통상류주택 공간의 분절 및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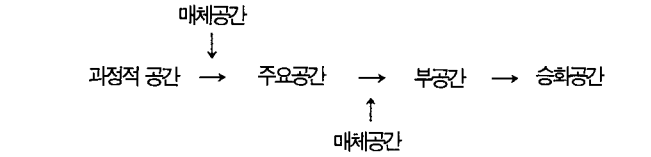
<그림 Ⅲ-1> 한국 전통상류주택 공간의 분절 및 연속성

主要空間과 연속되고, 주요공간은 주요공간 주변의 副空間과 연속된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의 전통공간은 공간의 연속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들은 큰 공간과 작은 공간, 긴 공간과 짧은 공간, 비정형적인 장방형 공간과 정방형 공간이 다양하게 연속되며 아름답고 재미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루는 공간에서

15) 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New York Horizon press, p.22.  
16) 南晚星, 老子道德經, 서울 을유문화사, 1974, p.46.

는 쉽게 空間의 連續性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

<표 Ⅲ-2> 한국 사찰 공간의 연속성



#### 2) 위계성

우리의 전통상류주택은 바깥 행랑채에 하인들 및 그 가족이 거거하며, 안쪽에 안채 및 사랑채가 있어 주인 및 주인가족이 살았으며, 그 뒤로 사당이 위치하여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위계성을 나타낸다. 또한 행랑채→안채→사당의 순으로 높이가 다르며, 주인은 대청이나 사랑의 높은 곳에서 지시하고 하인은 높이가 낮은 마당에서 들도록 위계가 되어있다.

사찰은 깊이 들어갈수록 건물들의 Level이 높아지며, 重要度가 높은 건물일수록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sup>17)</sup>

#### 3) 융통성

한국전통주택의 안방·대청·건너방은 이들이 서로 구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지문이 되어 있어 開閉가 자유로워 새로운 空間을 얻어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대청은 남쪽의 전면이 완전 개방되어 마당의 연속적 기능으로도 쓰이며, 북쪽의 후면이 들어 열개로 되어 있어, 좁고 限定된 内部空間을 외부에까지 擴張시키고, 반대로 외부공간이 내부에까지 침투하는 공간의 융통성을 부여한 우수한 공간이다.<sup>18)</sup> 장지문과 들어열개의 조절로 공간의 크기가 자유로이 조절될 수 있으며, 이들을 모두 열었을때 마당·대청·안방·건너방·후정이 하나로 연결된 큰 공간을 얻을 수 있다.

#### 4) 역등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이 연결되게 되면 그 연결방법에 따라서 공간감은 다양하게 변화된다. 즉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의해서 공간은 비로서 생동감을 갖게 된다.<sup>19)</sup> 한국의 전통공간에는 역등성을 띤 凹凸型 공간, 卍字型 공간, 卍字型 공간, 結節型 공간, 隅交型 공간, 卍字型 공간, 層段型 공간 등이 있다. <그림 Ⅲ-2>

##### ①凹凸型 공간

요철형 공간은 작은 공간이라도 답답함을 덜 느끼게 되며, 공간의 餘裕와 깊이를 느끼게 한다. 하나의 공간이 세계의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死角空間을 만들어 暗示的 性格을 띄게도 한다.

##### ②卍字型 공간

건물(壁) 사이로 공간을 띄어서 공간은 흐르게 하고 視線은 막아주는 기법의 공간으로 開放性과 閉鎖性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국전통공간구성에 가장 많이 활용된 형식이다.

##### ③卍字型 공간

상징이 되는 주요한 건물을 회랑이나 울담으로 둘러싸 형성된 공간으로 象徴性과 重要度를 높인다.

##### ④結節型 공간

결점을 계기로 큰 공간과 작은 공간을 分散시키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며, 공간을 변화를 시켜 深淵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 ⑤隅交型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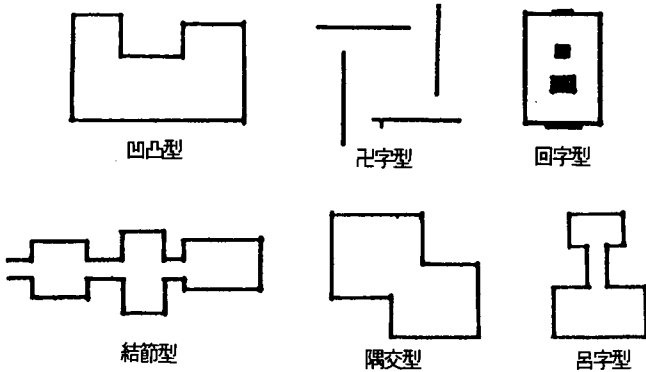
두개의 크지않은 공간 모서리 부분을 서로 중첩시켜 큰 공간으로 변하게 하며, 流出的 空間感을 느끼게하는 형태이다.

##### ⑥卍字型 공간

연결되는 통로공간이 너무 길면 분리감을 주기도 하고, 짧은 경우는

17)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출판사, 1980. p.16.  
18) 구재호, 건축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0. p.52.  
19) 김형대, 실내 단일공간에서의 한국적 역동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인덕전문대학 논문집, 1993, p.309.

결절형처럼 작은 공간이 큰 공간에 연속되어 하나의 큰 공간처럼 느끼는 有機的 空間이다.<sup>20)</sup>



(그림 III-2) 한국전통 역동공간

## 2. 전통의장의 특성

### 1) 바닥

한국 전통건축의 바닥구조로서는 흙바닥, 탕바닥, 마루바닥, 온돌바닥을 들 수 있다.<sup>21)</sup> 흙바닥은 신을 신고 밟는 부엌, 광 등에서 다져진 상태로 쓰였으며, 청소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나 디딜때의 좋은 느낌과 질감이 매우 뛰어난 바닥이다. 탕바닥은 王宮의 正殿 내부 바닥과 宗廟의 步道, 왕릉의 길 포장에 쓰인 것으로 권위의 상징이었다. 마루바닥은 구성방식에 따라 우물마루, 장마루, 쪽마루로 나뉘어지며, 우물마루가 한국전통마루의 原本이라 할 수 있고, 쪽마루는 洋式구조라 할 수 있으며,<sup>22)</sup> 마루와 천장은 面的構成과 線的構成을 하게 되어 좋은 대조를 이루게 된다. 또한 온돌바닥은 마루바닥과 面的要素와 線的要素로 대조를 이룬다.

### 2) 벽과 담장

한국의 벽체는 대체로 木造架構의 기둥·보·인방 등이 노출된 心壁構造로 되어 있으며, 깨끗한 느낌과 거친질감을 나타낸다.<sup>23)</sup> 벽체의 외부가 防火牆으로된 벽체도 쓰였는데, 방화장은 기둥下部 2/3 가 벽체속에 묻히고, 기둥上部 1/3 은 하안회벽으로 지붕골 그림자와 함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방화장의 아래 2/3 는 사고석등 큰 돌로 쌓고, 위 1/3 은 검회색 벽돌을 쌓아 構造的 安定感을 나타낸다.

한국의 담장은 의장적 아름다움과 함께 재미있는 특색을 내포하고 있다. 담장은 건축주의 신분에서 따른 의장과 높이를 나타내며, 담장안에 또 담장을 세워 크고 작은 마당공간을 형성시키며, 공담(空牆)을 쌓아 하나의 공간에 서로 다른 두개의 공간을 만들어 공간의 변화와 크기에서 흥미를 갖게 한다. 담장의 意匠의 特色은 벽돌, 사고석, 막돌을 반복적으로 쌓는 방법과 문자무늬, 동물무늬, 식물무늬, 기하학적무늬를 단독 또는 혼용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중 꽃담에 혼용수법이 많이 쓰였으며, 동물무늬와 식물무늬를 혼합한 十長生紋이 있다. 心壁構造는 내부와 외부에 쓰여지며 장식적 요소가 없으며, 防火牆은 외부에 쓰여지며 정적인 의장으로 쓰여졌고, 담장은 외부에 쓰여지며 장식적 요소가 身分의 요구에 따라 적게서부터 화려하고 많게까지 쓰여졌다.

### 3) 천장

한국전통건축의 천장에는 연등천장, 우물천장, 층단천장, 보개천장, 빗천장 등이 있다. 연등천장은 박공형지붕 안쪽에 서까래들이 내부에서 그대로 노출된 天障으로 주택의 대청과 주심포식 殿閣에서 많이 쓰

였다. 서까래와 서까래사이의 흰 회비량이 대조되어 강한 構造美를 나타낸다. 우물天障은 우물마루처럼 귀틀을 짜고 정사각형의 청판을 끼워 우물井字처럼 된 것으로 寺刹과 궁궐의 전각에서 널리 쓰였다. 층단천장은 전각의 넓이와 높이의 대형화로 우물천장이 층을 이루며 변화된 것이다. 보개천장은 우물천장의 중앙부를 경사를 두고 더 깊게 판 천장으로 궁궐正殿의 御座상부와 사찰의 佛壇上部에 쓰인 것이다. 빗천장은 우물천장과 함께 만드는 천장으로 우물천장 아래로 경사진 천장이다.

한국전통건축의 천장은 박공형으로 구조미가 강조되며 담백한 연등천장과 천장이 파이고 구조미와 함께 화려하게 단정된 천장으로 대부분 되어있다.

### 4) 단청

단청은 목재면의 보호와 아름다움을 위한 것으로 王宮과 寺刹에만 사용된 것으로 五行을 뜻하는 靑·赤·黃·白·黑의 五彩를 사용하였다. 단청은 바탕칠이 되는 가칠단청과 일정한 폭으로 색줄긋기하는 굿기단청과 창방, 평방, 기둥, 서까래 끝부분에 하는 모로단청으로 이루어진다. 단청은 기둥상부 이상에 架構된 木構造에 화려하고 유쾌하게 표현된 것이다.

### 5) 창살

창살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단한 문양의 井字살·用字살·띠살이 있고, 복잡한 문양의 亞字살·卍字살·빗살·숫살·貴字살·귀갑살 등이 있고, 五彩를 사용한 화려한 꽃살이 있다.<sup>24)</sup> 또한 많은 변화에서 나타나는 變形살들이 많이 있다. 문양의 형태는 完全對比로 Balance를 이뤄 질서와 안정감을 나타낸다. 用字살은 남성적 공간에 많이 쓰이고, 亞字살은 여성적 공간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꽃살은 웅장하고 화려한 殿閣과 寺刹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창호지의 부착위치는 창살을 외측으로하고 실내의 내측에 붙이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며 日本과는 부착위치가 반대이다.

### 6) 기와·서까래·부연·처마선

지붕을 축조하기 위한 구조적 부재인 서까래와 크고 무거운 지붕이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설치된 부연에 의해 한국의 아름다운 대표적 선인 처마선이 생겨났다. 서까래는 원형의 긴부재이고, 부연은 각형부재이다. 한국의 처마선은 처마 양끝이 일본·중국의 수평선 및 1/4 원호에 가까운 선형이 아니라 살포시 들어올려 날아갈듯한 자연스런 3차원의 曲線이다. 처마는 외부공간으로 돌출된 것이며 내부공간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 IV. 현대 한식당의 전통표현 조사분석 및 활성화방안

### 1. 조사대상 선정배경

한국의 실내디자인은 한국전통성이 표현되어야 하지만 공간의 성격 및 여러 여건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韓食堂은 전통표현이 요구되는 代表的 空間이며 전통표현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 공간이므로 선정하였다. 한식당 중에도 전통표현이 많이 나타난 서울의 주요 호텔·百貨店의 한식당과 有名 한식당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한식당은 전통의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으로 제외하였다.

### 2. 전통표현 조사 분석

#### 1) 계승방법

변용방법 + 원용방법으로된 곳이 8곳, 변용방법으로된 곳이 7곳으로 주로 變用中心으로 표현되었으며, 원용방법과 원용 + 변용 + 추상적 방법으로된 곳이 각 3곳이었다. 추상적방법만으로 표현된 곳은 없었으며, 西洋式으로만 된 곳도 5곳이나 되었다. 이것은 변용방법 → 원용방법 → 추상적방법 順으로 표현되고 있음과 추상적표현의 어려움을

20)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출판사, 1980, p.52-59.

21) 주남철, 한국건축미, 일지사, 1982, p.74.

22) 주남철, 앞의 책, p.74.

23) 최경숙, 한옥의 건축의장요소가 현대주택입면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덕전문대학, 1989, p.6.

24) 김영중,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p.45.

〈표 IV-1〉 조사대상 한식당

호텔						백화점						유명식당																																							
호텔명			식당명			백화점명			식당명			식당명			위 치																																				
르네상스	사비루	상계미도파	-	한우리	회원	-	중구순화동	프라자	용수산	장안가	-	중구북창동	롯데	무궁화	롯데	-	강남구청담동	조신	서블	롯데	-	강남구청담동	인티네탈	한가위	삼성동현대	-	강남구대치동	삼정	금감산	-	강남구삼계동	노보텔	다사랑	압구정현대	-	강남구상현동	신피텔	서라벌	압구정현대	-	강남구논정동	소세	금수장	갤러리아	-	종로목정동	세	한가람	한신코아	-	노원구월계동

뜻하며, 서양식으로만 된 5곳은 한식당으로서 전통표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전통공간

전통공간의 표현은 전통의장의 표현에 비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절과 연속성·역동성은 호텔한식당의 일부에서 표현되었고 백화점과 유명식당에선 대부분 표현되지 않았으며, 융통성의 표현도 장지문의 이용뿐이었다.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을 나타낸 곳은 5곳으로 대부분 호텔 한식당이다. 온돌방의 확장·축소를 위해 장지문을 설치하여 융통성을 나타낸 곳은 13곳이나 들어열개를 사용하여 융통성을 나타낸 곳은 없었다. 백화점에선 고객의 이용특성때문에 온돌방과 장지문이 없어 융통성이 표현된 곳은 1곳도 없었다. 위계성은 공간의 깊이나 신분의 차에서 표현된 것이 아닌 온돌위에서의 좌식식사를 위한 기능상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23곳이다. 역동성 공간이 표현된 곳은 10곳이며 목자형공간 4→結節型공간 3→回字型공간 2→凹凸型공간 1의 순이다. 공간의 역동성도 대부분 호텔의 한식당에서 나타났고 백화점과 유명식당은 각 1곳씩 뿐이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은 역동공간 형은 卍字型공간과 隅交型공간이다.

3) 전통의장

① 하나의 식당에 가장 많이 쓰인 전통의장요소수는 24개이며, 가장 적게 사용된 곳은 4개이다.<sup>25)</sup> 傳統要素 평균사용수는 호텔 한식당이 18개, 백화점 한식당 10개, 유명한식당 7개로 호텔한식당이 전통성을 많이 표현하고 있으며, 유명한식당들은 전통표현이 미진한 상태이다. 전통요소가 많이 쓰인 곳 일수록 전통의 느낌이 많이 났다. 많이 쓰인 요소는 창살 27→서까래 17→심벽구조 16→기와 12→부연 11→담장무늬 7→마루 6→단청 5→공포·목제·대문·사고석벽 4→연등천장 2→숯대문·보개천장 1의 순으로 벽체와 처마의 요소가 주로 많이 쓰였다.

② 바닥

마루바닥으로 된 곳은 6곳이며, 塼바닥과 흙바닥으로 된 곳은 없다. 우리의 전통바닥이 아닌 판석·타일·카펫으로 된 곳이 대부분이다. 마루바닥중 한국전통마루의 원본인 우물마루로 된 곳은 3곳 뿐이며, 텃마루는 22곳이나 대부분 쪽마루로 되어있다. 호텔은 카펫과 판석이 주로 쓰였으며, 百貨店과 有名食堂은 타일·비닐타일·마루로 되었다.

③ 벽

心壁構造는 16곳으로 많은 편이며, 防火牆과 꽃담으로 된 空牆은 6곳과 3곳이 되어있다. 벽의 상부는 대부분 도배로 되었으며 회벽과 페인트로 된 곳이 각 2곳이다. 벽의 하부는 대부분 무늬벽과 도배로 되었으며 사고석이 쓰인 곳은 7곳중 6곳이 호텔이며, 벽돌로 된 곳은 2곳 뿐이었다. 담장무늬가 쓰인 곳은 7곳으로 현대적이며 표현이 용이한 기하학적 무늬만으로 되어 있었다.

④ 천장

층을 이룬 천장은 28곳이나 되나 층단천장은 7곳이며, 우물천장은

25) 1개의 요소가 여러번 쓰여도 1개로 산정했음.

4곳이다. 전통건물의 천장은 대부분이 構造美와 함께 수평이 아닌 박공형이나 층단형으로 되어 있으나 구조미가 나타난 곳은 10곳뿐이며, 서까래가 나타나고 박공형인 연등천장은 2곳 뿐이고, 보개천장은 1곳 뿐이다.

⑤ 단청

단청이 표현된 곳은 5곳뿐이었으며 천장까지 단청처리된 곳은 1곳 뿐이다. 일반적인 한국건물의 실내는 매끄럽지않은 느낌이며 담백하나 重要度가 높은 건물에선 화려한 단청으로 치장된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한식당은 무늬목이나 대패질된 목재를 사용하여 매끄럽고 화려하지 않은 日本風이 많이 표출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⑥ 창살

전통의 표현에 가장 많이 쓰인 요소로 27곳에서 쓰였다. 전통을 표현하는데 가장 用以한 요소로 판단된다. 또한 옛부터 변화가 가장 많은 요소로 현재에도 變形을 나타낸 곳이 16곳이나 되었다. 제작이 용이하며 현대감각에 맞는 정자살·빗살의 변형이 대부분으로, 정자살·빗살·亞字살이 8곳정도씩 쓰였다. 꽃살·卍字살은 1곳씩만 쓰였다. 日式살이 쓰인 곳이 3곳이나 되는 문제도 있었다. 창살과 함께 한지가 대부분 쓰였으나 일본식으로 살의 외측에 한지가 붙여진 곳이 9곳이나 되었다.

⑦ 기와, 서까래, 부연, 처마선

기와가 쓰인 곳은 12곳이었고, 서까래 17곳, 부연 11곳이 쓰였다. 기와없이 서까래만 쓰인 곳이 5곳, 부연없이 서까래만 쓰인 곳이 6곳이나 있었다. 이것은 기와없이도 서까래와 부연이나 서까래만으로도 전통표현에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서까래가 각형부재로 쓰인 곳이 3곳 있었다. 처마가 설치된 곳의 모든 처마선은 3차원의 曲線이 아니라 모두 水平의 一直線이었다.

⑧ 현관문은 목제대문 2곳, 숯대문 1곳이 쓰였고, 대부분 유리문으로 되어 내부홀을 투시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유리문 중 3곳이 한국화의 엇칭유리로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⑨ 들어열개와 공포는 호텔에만 2곳씩 표현되었다.

3. 전통표현 활성화방안

1) 전통공간

의장만으로 성공적인 실내디자인이 불가능하므로 의장디자인에 앞서 흥미롭고 느낌이 좋은 공간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보다 흥미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分節, 連續性, 力動性 있는 공간이 많이 구성되어야 한다. 분절은 식당홀 진입부에 公담(空牆)을 만들어 현관홀에서 식당홀로의 진입을 분절시키는 방법이 있다. 전통적 방법으로 公담에 작은 개구부를 두어 현관부와 식당홀이 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미있는 표현이다. 또한 식당홀과 온돌방들 사이의 벽을 尙장화하고 일각문을 설치함으로 분절·연속성·위계성의 표현이 가능하며, 융통성의 표현은 온돌방과 온돌방 사이뿐만 아니라 온돌방과 식당홀사이의 장지문 사용으로 보다 많이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대형창

에는 들어열개를 던 설치하여 시선 및 공간감을 폐쇄·확장시킴으로 융통성을 표현할 수 있다. 韓食堂 모두 특색있는 우리의 傳統空間이 표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백화점과 유명 한식당에서도 分節 및 連續性과 力動性的 空間이 쓰여져야 할 것이다.

## 2) 전통의장

① 전통의 느낌이 많이 나도록하기 위해선 우선 傳統要素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요소의 수로도 13개 이상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바닥

권위의 상징이었던 塼바닥과 한국전통마루의 원본인 우물마루가 많이 쓰여져야 하며, 양식구조인 쪽마루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매끄러운 판석과 카펫바닥도 지양되어야 한다.

### ③벽

벽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벽구조·방화장·공담·꽃담이 쓰여져야 한다. 防火牆 표현의 벽체하부는 무늬목·도배대신 사고석·벽돌과 같은 거친질감으로 쓰여지고 안경감이 나도록 해야하며, 공담(空牆)에는 기하학적 무늬뿐 아니라 식물·동물·문자·혼용 무늬도 쓰여야 한다. 또한 실내의 칸막이는 공담의 개념으로 전통무늬를 활용할 수 있다. 大形窓의 외측엔 개·폐가 가능한 전통살 무늬의 덧창을 달아 室의 내부에서 분위기의 변화가 있게할 수 있고, 실내에서 외부의 성격을 띄는 Facade는 담장이나 방화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천장·벽·바닥 중에 시야에 들어오는 면이 가장 큰 것이 벽이므로 벽의 디자인은 특히 重要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④천장

천장은 구조미와 함께 담백하게 처리되거나 단청이된것 같이 화려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 크지않은 공간은 박공형인 연등천장으로 構造美와 함께 담백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고, 크고 격이높은 공간은 보개천장 및 층단천장으로 하고 화려하게 처리하며 서까래등을 이용하여 구조미가 보조적으로 표현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전통공간중 動的空間에는 수평천장이 없으므로 수평형 천장은 지양되어야 하고 연등천장·보개천장·층단천장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층단천장과 우물천장은 명확한 형태로 구분되어 쓰여져야 할 것이다.

### ⑤단청

강렬하고 단정하며 화려한 느낌을 주는 5가지 색이므로 청·적·황·백·흑이 아닌 조화로운 5가지 色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主要空間의 기둥 윗부분(천장 등)은 단청등으로 색채적이며 화려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⑥창살

공간의 성격에 따른 변형된 살형태가 많이 쓰여져야 할 것이며, 꽃살·卍字살의 변용 및 원용형태도 활용되어야 한다. 日式살이 한식전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절대안되며, 한지의 부착위치도 기금적 우리의 방법대로 실의 내측에 부착되어야 할 것이다.

### ⑦기와, 서까래, 부연, 처마선

기와, 서까래, 부연이 같이 구성되지 않고 서까래와 부연, 서까래만의 표현으로도 전통표현이 잘됨으로 처마 및 천장의 표현에 서까래·부연·기와의 구성이 꼭 필요치는 않다. 서까래는 원통형 부재로, 부연은 각형부재로 되어야 하며 각형부재로만의 표현은 일본식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기와가 없던 추녀가 구성될 경우는 3차원의 지붕선이 나타나게 되어야 할 것이다.

⑧ 현관문은 韓國畫가 새겨진 옛창유리문에 木材大門을 덧설치하여 전통을 표현하면서 식당의 개·폐도 나타낼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 있다. 솟을대문의 이용도 격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⑨ 우리의 독특한 전통요소인 들어열개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며, 공포의 현대화에도 관심이 많아야 할 것이다.

⑩ 格이 높게 쓰였던 要素인 塼바닥, 방화장, 꽃담, 보개, 우물, 단청, 공포, 꽃살, 솟을대문 등의 요소가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1) 전통에 대한 느낌, 선호도, 시대상에의 적응을 수용하며 전통이 계승·발전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은 變用方法이 디자인의 主가 되고 원용방법과 추상적방법이 部分的으로 함께 쓰여져야 하며, 변형화와 추상화의 과정에서 개념이 왜곡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2) 전통의 표현은 의장 및 장식만이 아니라 空間, 意匠, 裝飾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한 우리의 傳統空間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전통 느낌이 많이 나는 디자인을 위해선 각기 다른 傳統要素의 數를 많이 활용해야 하며, 질적 디자인을 위해선 格이 높게 쓰였던 전통요소들을 활용해야 한다.

4) 現代 韓食堂의 전통표현으로 傳統要素中 창살·심벽구조·서까래·기와·부연이 주로 많이 쓰였으며, 格이 높게 쓰였던 要素들은 매우 적게 사용되었다.

5) 傳統要素의 數가 쓰인 정도는 호텔 한식당은 50% 정도, 백화점과 유명 한식당은 25% 정도로 호텔의 한식당이 비교적 전통표현이 많았으며, 백화점과 유명 한식당은 미흡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호텔 한식당도 보다 더 전통적인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백화점과 유명 한식당은 현재 사용된 전통요소수의 2배 이상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모든 전통디자인요소들이 활용될 때에는 결론 1)의 계승방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주남철, 한국건축미, 일지사, 1983.
2.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출판사, 1980.
3.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4.
4.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 미, 기문당, 1987.
5. 南晚星, 老子道徳經, 을유문화사, 1974.
6. 신영훈, 한국건축과 실내, 대한건축사협회, 1986.
7. 이기문김수,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
8. 이기백, 고교 교과서 국어 II.
9. 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NewYork HorizonPress.
10. 정덕훈,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석사논문, 1987.
11. 구재오, 건축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80.
12. 김영중,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13. 김형자, 한국전통적 특성을 활용한 아파트 실내계획, 홍익대석사논문, 1985.
14. 이종만, 조선시대 전통상류주택의 공간비례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논문, 1984.
15. 박명희, 한국건축의 구조적의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사논문, 1981.
16. 이도희, 조선조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사논문, 1980.
17. 나연희, 한국건축 의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사논문, 1982.
18. 강지민, 목조건축물의 단청무늬에 대한 연구, 홍익대석사논문, 1976.
19. 오인식, 한국주거건축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 1976.
20. 공종열,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해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논문, 1982.
21. 김형대, 실내 단일공간에서의 한국적 역동공간구성에 관한연구, 인덕전문대 논문집, 1993
22. 최경숙, 한옥의 건축의장요소가 현대주택입면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89.
23. 김중업, 김수근, 전통을 계승하는 길, 공간, 1967년 1월호.
24. 안영배,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특성과 구성수법,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호.
25. 한창진, 한국건축의 전통양식계승, 건축사.
26. 이상해, 전통과 건축문화: 그와 상반되는 보편적인 문제점들,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호.
27. 김광현,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적 표현과 그 파생기념비판,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호.
28. 임창복, 전통논의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하여, 건축과 환경, 1988년 6월호.
29. 장기인, 현대건축의 한국적 표상, 건축문화, 1983. (집수 : 1995. 8. 31)